



국산 거베라 새 품종 생육 상황 조사 24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연구원들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거베라 새 품종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식량작물 저탄소 재배기술 보급 확산 실천운동 추진

농진청, 들녘경영체와 협업으로...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심기 등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사)한국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이하 들녘경영체)와 협업해 식량작물 저탄소 재배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이번 실천운동은 벼 재배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논물(논에 껴있는 물) 관리와 질소비료 사용 줄이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심기 등을 실시한다.

논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내부 미생물로 인해 용존산소(물속에 녹아있는 분자상태의 산소)가 소모돼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벼 생육기간 중 중간 물때기(논물 말리기)와 논물 얇게 걸러내기 등 논물 관리가 필요하다. 질소비료는 밀거름, 이삭거름 등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거름이다. 관행적으로 10아트(a)당 9kg씩 주던 질소 비료량을 7kg으로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벼 재배과정 중 사용하는 비료량은 토양검정을 받은 뒤 밭갈이 받은 비료처방서에 따라 부족한 성분 기준량에 맞춰 주어야 한다. 논에 물을 가꾸 재배하는 벼 대신 콩 등 작물을 재배하면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농진청은 3저(低)·3고(高) 실천운동을 통해 벼 재배 시 비료 주는 횟수를 관행 3회에서 2회로 개선했으며, '새누리', '운광' 등 다수확 벼 품종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밭밭 좋은 '삼광', '하이아미' 등 벼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시킬 방법의 일환으로 식량작물 저탄소 재배기술과 연계된 시범사업의 재배기술 지원을 안내했다. 이 내용을 안내책자로 만들어 농촌진흥청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들녘경영체와 함께 2017년부터 추진한 3저(低)·3고(高) 실천운동을 통해 농업현장의 탄소배출 감축 및 다수확 벼 품종 재배면적 축소,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3저(低)란 질소비료는 10a당

9kg에서 7kg이하로 줄여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직파·드문파 재배 확대로 생산비는 줄이며,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을, 3고(高)는 양 위주보다는 품질 중심의 벼 품종을 재배해 밭밭과 안전미 비율은 높여 쌀 소비를 늘리자는 내용을 말한다.

농진청은 3저(低)·3고(高) 실천운동을 통해 벼 재배 시 비료 주는 횟수를 관행 3회에서 2회로 개선했으며, '새누리', '운광' 등 다수확 벼 품종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밭밭 좋은 '삼광', '하이아미' 등 벼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시킬 방법의 일환으로 식량작물 저탄소 재배기술과 연계된 시범사업의 재배기술 지원을 안내했다. 이 내용을 안내책자로 만들어 농촌진흥청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들녘경영체와 함께 2017년부터 추진한 3저(低)·3고(高) 실천운동을 통해 농업현장의 탄소배출 감축 및 다수확 벼 품종 재배면적 축소,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3저(低)란 질소비료는 10a당

동일종자 여러명칭 사용 근절 유통질서 확립

국립종자원, 수입 의존도 높은 양파 종자 대상 유통조사 추진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종자업체 등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품종이(異) 명칭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산 품종의 국내산 둔갑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파 종자를 대상으로 유통 조사를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일품종이(異)명칭이란 동일종자를 여러 명칭으로 유통하는 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종자업체에서는 신품종이 아닌에도 가격과 품질에 대한 내역을 숙이거나 유통업체에게 허위 독점판매권 부여 등 종자업체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

앞서 국립종자원은 업체 자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지진 취하 기간을 운영해 총 42개 업체에서 17개 작물 363품종(양파 33개 업체 267개 품종)이 취소되도록 유도할 바 있다. 또, 이에 대한 후속 추가조치로 일품종이(異)명칭 자진취하 미실시 업체 등의 이(異)명칭 의심 양파품종에 대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했으나 양파 작물의 특성상 동일한 품종이라도 유전적 유사도가 낮아 유전자 분석으로는 일품종이(異)명칭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생산업체 방문조사, 생산·수입판매신고 서류 정밀 검토를 통해 일부 양파 품종이 허위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월에 26개 업체 117개 품종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직권취소 처분, 해당 품종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제품 회수 명령을 냈다. 이러한 내용을 국산 양파 종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무안, 창녕, 함양 등 주산지 지자체에 취소 내역을 통보해 농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두 차례의 일품종이(異)명칭 조사를 통해 종자 일부 업체들이 일품종이(異)명칭을 관행적으로 만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인지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해외의 종도, 신고건수, 민원제기 등을 고려해 유전자분석이 가능한 작물 중심으로 유통종자에 대해 유전자분석, 현장조사, 재배시험 등 정기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접수 단계부터 서류를 정밀 검토해 미비점 발견 시 반려 조치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안종락 종자산업지원과장은 "향후 일품종이(異)명칭 및 허위신고 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바로 직권취소,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법적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종자산업법 위반 시 벌칙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국경제전망 웨비나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는 일본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경제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기업 및 유관기관 35개사가 참여했으며,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와 2021년 한국경제전망, 주요 산업 동향과 환율전망, 최신 세부정보에 대한 전문가 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전기차·수소차를 포함한 자동차, 소재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중대형 사용자 생산량의 94%를 차지하는 전북의 자동차, 첨단소재 산업 환경을 비롯해 새만금 모빌리티(이동 수단)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현황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개발청과 하나는 행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지난 2017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그동안 기업유치와 입주 기업 지원에 협력을 다져왔다.

새만금개발청 이용욱 개발전략과장은 "코로나19로 해외 기업들과 직접 대면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연거푸 또는 축소돼 왔으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 경제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일본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탈석탄 금융' 전격 선언

전북은행, 기후변화 위기 선제 대응 위해 동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관련회사 채권 인수 중단 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지난 23일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금융' 동참을 선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탈석탄 금융' 선언식에는 서한국 수석 부행장을 비롯한 전북은행 전 임원과 본부부서장이 참석해 친환경 금융 서비스를 위한 행보에 역사적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기후변화 위기 요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 특유의 높은 탄소 집약도로 인해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초미세 먼지 배출량 증가의 가장 큰 대기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은행은 '탈석탄 금융 선언'을 통해 2016년 11월 지구 평균 온

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고자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전 세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신규대출 중단, 관련사업의 채권 인수 중단을 시발점으로 환경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책임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주도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금융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친환경 금융 추진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의 뜻을 모아 '탈석탄 금융 선언'을 공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3일 '탈석탄 금융' 선언식을 갖고, 서한국 수석 부행장을 비롯한 전북은행 전 임원과 본부부서장이 참석해 친환경 금융 서비스를 위한 행보에 역사적 첫 발을 내딛었다.

'NH국민은행' 가입고객 700만명 돌파

출시 4년 8개월만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사진)은 간편 모바일 플랫폼 'NH국민은행' 가입고객이 출시 4년 8개월만에 700만명(전북 295천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NH국민은행은 2016년 7월 쉽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농협 상호금융이 선보인 디지털 플랫폼이다. 기존 모바일 뱅킹에 더해 농업인 맞춤형 영농정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곡판'과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곡푸드'를 탑재하며 농업인의 디지털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멀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농협은 'NH국민은행'에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12월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했고, 지난달 21일에 개인 데이터(My Data)와 공공정보를 결합한 'MY곡'을 런칭해 이용



자는 건강정보, 부동산정보, 귀농·귀촌정보, 복지·정책자금 등 다양한 관심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향후 'NH국민은행'은 ▲금융상품물 개선 ▲고객 행동패턴 분석 솔루션 도입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및 송금 한도 상향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등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NH국민은행 가입고객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다"며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부·aT, 청년 인턴십 운영 참가기업 모집

청년 구직자와 식품·외식기업 간의 일자리를 매칭하는 인턴십 사업이 올해는 300명 규모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참가기업을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인턴십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참가기업에게 최대 3개월까지 인턴 연수비의 50%를 지원하고, 연수생 대상 식품 위생·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참가기업은 인턴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 현장 실무경험 기회 제공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 ▲본사가 비수도권인 기업 ▲인턴십 사업을 통해 채용한 인턴을 급근까지 고용 유지한 기업을 대상

으로 가점부여 및 연수비용 추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사업은 2018년 67명 수료생 배출을 시작해, 2019년에는 100명이 인턴을 수료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당초 목표 200명을 상회하는 390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했다.

aT 오영환 식품수출이사는 "식품·외식기업 인턴십을 통해 식품·외식 산업에 특화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식품·외식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 10일 오후 3시까지 aT FTS홈페이지(www.atfs.or.kr)의 모집공고를 확인해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LX, 美 LACP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금상'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경택)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 평가됐다.

LX는 지난해 4월 발간한 '2019 LX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19/2020 비전어워드'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금상(GOLD)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성과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등 사회적 책임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다.

비전어워드는 LACP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어워드로 포춘 500대 기업들을 비롯해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사회공헌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이번 LX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심사위원 평가에서 '콘텐츠의 충실성', '창의성', '서술기법' 등 8개 평가분야 중 6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글로벌 TOP 100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2019 LX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LX의 경제적 성과를 비롯해 동반성장,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등 사회·환경적 성과가 함께 수록돼 있다.

김희범 LX 사회적가치실현처장은 "이번 수상은 LX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대표 공기업으로 인정받은 획기적 사례"라며 "앞으로 LX는 한국관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트윈 모델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하림, 익산지역 초교에 조식지원 2500여만원 전달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지역사회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를 비롯해 월드비전 나운철 본부장,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이 참여한 가운데 '아침메이' 프로그램 협약식과 함께 2,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식사 및 정서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역 초등학교 3곳(송하초, 이리초, 동복초)의 학생들을 위해 지원한다. /익산=정영원 기자



남원지역 농·축협 '사랑의 헌혈 행사'

남원시 관내 농·축협 직원들은 24일 민인의 총 앞 광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헌혈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응급혈액 수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이웃사랑 헌혈에 동참했다.

이번 헌혈에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 남원권역보존센터(센터장 남용수), 남원 관내 지역 농·축협, 남원시조공법인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국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축협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